

2020  
사서가 추천하는  
여름방학에  
읽기 좋은 책



2020  
사서가 추천하는  
여름방학에  
읽기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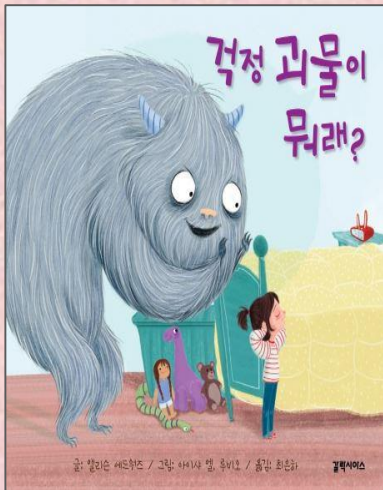
- 유아, 초등저, 초등고, 청소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유아

책 제목	주제 구분	지은이	발행사	발행년도
걱정 괴물이 뭐래?	철학	글: 엘리슨 에드워즈 ;그림: 아이샤 엘. 루비오 ; 옮김: 최은하	갈락시아스	2019
간지러사우루스	기술과학	로지 웰레슬리 지음 ; 김지연 옮김	보랏빛소어린이	2019
일어나기 싫어!	문학	이경은 쓰고 그림	키다리	2019
과자가 되고 싶은 피망	문학	이와카미 아이 글 그림 ; 고향옥 옮김	길벗스쿨	2019
작은 친절	철학	팻 지틀로 밀러 글 ; 젠 힐 그림 ; 이정훈 옮김	북뱅크	2019
할머니 어디 있어요?	문학	글·그림 안은영	천개의 바람	2019
토라지는 가족	문학	이현민 글·그림	고래벳속	2019
슬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철학	다그마 가이슬러 글·그림 ; 이정희 옮김	풀빛	2019
아주아주 큰 침대	문학	분미 라디탄 지음 ; 톰 나이트 그림 ; 마술연필 옮김	보물창고 : 푸른책들	2019
모모와 토토	문학	김슬기 지음	보림	2019



글: 엘리슨 에드워즈

옮김: 최은하

갈락시아스

2019

## 걱정 괴물이 뭐래?

### 사서의 추천 글

걱정 괴물이 속삭여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힘들어 한 적은 없나요? 소녀의 마음속에 걱정 괴물이 살고 있다. 소녀는 걱정 괴물이 속삭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더 이상 걱정 괴물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간다. 이 책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걱정을 괴물로 표현하며,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준다.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 저자 소개

**엘리슨 에드워즈**(Allison Ed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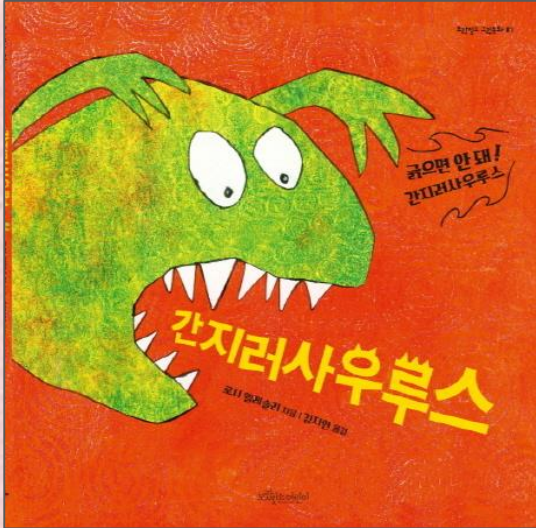
전문상담사이자 놀이치료사이다. 노스웨스트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상담소를 운영하며 어린 시절의 불안에 대해 글을 쓰고,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미래의 상담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샤 엘. 루비오**(Ayesha L. Rubio)

런던에 거주하며 국내외 출판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현재까지 4권의 책에 삽화를 그렸고, 지금은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푹 빠져 있다.

### 책 속 한 문장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23쪽)



로지 웰레슬리 지음 ;  
김지연 옮김  
보라빛소어린이 2019

## 간지러사우루스

### 사서의 추천 글

정글에 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피부가 빨갱게 변하고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다. 긁으면 긁을수록 상처가 나고 더 아프다. 간지러사우루스가 되어 버린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익살스런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좌절 대신 긍정적인 생각과 재미난 놀이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

### 저자 소개

#### 로지 웰레슬리(Rosie Wellesley)

런던에서 태어나 모로코,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 프린스 스쿨 오브 드로잉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집필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일에도 의학적인 요소를 많이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료해 주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그럼 다른 것에 집중해 볼까요?” (20쪽)



이경은 쓰고 그림  
키다리  
2019

## 일어나기 싫어!

### 사서의 추천 글

“셋 셀 동안 일어나! 하나, 두울, 둘 반, 둘 반의 반의 반...”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도현이는 차라리 몸이 아프거나, 침대에 누운 채로 학교에 가는 엉뚱한 상상을 한다.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렵게 도착한 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좋아하는 헤미가 옆자리에 앉아 있고, 어렵기만 하던 수학 문제가 술술 풀린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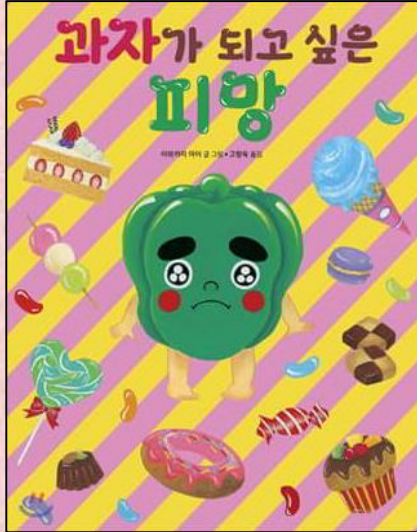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이대로 누워서 학교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7쪽)

### 저자 소개

#### 이경은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꼭두 일러스트 교육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다. 꼬마 친구들이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꿈을 꾸길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고, 쓰고 그린 책으로 <다돼지>가 있다.



글: 이와카미 아이,  
 옮김: 고향옥  
 길벗스쿨  
 2019

## 과자가 되고 싶은 피망

### 사서의 추천 글

피망은 도시락 반찬이 되는 게 꿈이다. “피망 싫어요! 과자가 좋아요.”라는 유주의 말에 과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사탕,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변신하여 가게에 숨어 보지만 번번이 아이들 눈에 띈다. 유주는 엄마에게 다음날 도시락 반찬으로 피망을 싸달라고 한다. 과연 유주는 피망을 먹을 것인가?

피망이 식탁으로 오기까지 과정을 보여주어, 채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예쁜 과자들 속에서 열심히 변장한 피망을 찾는 재미도 있다. 편식하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이다.

### 책 속 한 문장

“유주야, 싫어하는 나를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어 줘서 고마워. 하지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 (30쪽)

### 저자 소개

#### 이와카미 아이

1981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에 있는 유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과 만들기를 가르치면서 그림책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지은 그림책으로는 『파란 도깨비와 이상한 빨간 실』, 『세상을 바꾼 괴물 5인조!』가 있다.



**팻 지틀로 밀러 글 ;  
젠 힐 그림 ; 이정훈 옮김**  
**북뱅크**  
**2019**

## 작은 친절

### 사서의 추천 글

타니샤가 내 새 옷에 실수로 포도 주스를 쏟아 옷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친구들은 깔깔 웃지만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이 생각난 나는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타니샤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친절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친절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친절할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주인공은 사려 깊고 섬세하다. 친절은 누군가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그 관심은 긍정적인 힘을 불러온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할 행동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 책 속 한 문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작은 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작은 일들이 함께 모이면 점점 크게 자랄 거예요.”  
(20-21쪽)

###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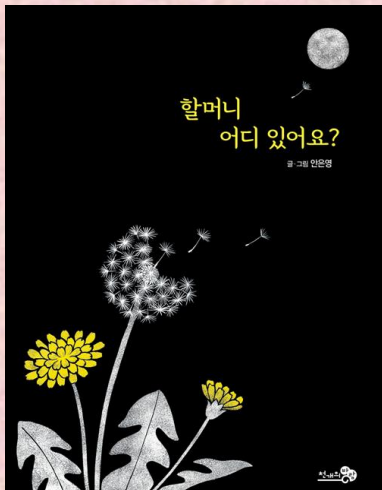
#### 팻 지틀로 밀러

미국 위스콘신에서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제멋대로인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으로 황금연상을 수상한 『소피와 호박』이 있다.

#### 젠 힐

1975년생으로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디자인을 졸업하고 많은 그림책의 삽화를 그렸다. 지금은 남편과 작은 조수 리틀비(고양이)와 함께 뉴욕에 살고 있다.





글·그림 안은영

천개의 바람

2019

## 할머니 어디 있어요?

### 사서의 추천 글

늘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주인공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아 나선다. '죽으면 별이 되고 싶다'던 할머니의 말대로 별자리에 물어보고, 아끼는 장난감을 살핀다. 할머니가 읽어준 그림책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이 담긴 보물상자도 열어본다. 과연 아이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아이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랜다. 할머니의 깊은 사랑도 느낀다. 죽음과 헤어짐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책은 이별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

### 책 속 한 문장

"할머니는 늘 말했지요. '너랑 꽃밭이 할미 보물이란다.' 할머니의 보물은 내가 가꿀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26쪽)

### 저자 소개

#### 안은영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꽃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한다.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는 『네발나비』, 『멋진 사냥꾼 잠자리』, 『찾았다! 갯벌 친구들』, 『도둑게야 어디 가니?』, 『가방에 뭐가 있을까』 등이 있다.



이현민 글·그림  
고래벳속  
2019

## 토라지는 가족

### 사서의 추천 글

어느 일요일 아침, 별다른 이유 없이 토라진 가족들은 집을 나와 호수, 공원 등 각자의 공간으로 가 버린다. 아빠, 엄마, 할머니, 누나, 형, 막내까지 모두. 형은 호숫가에서 돌을 던지고 막내는 고양이와 새들을 쫓아다닌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태어나서 처음 먹는 것처럼 밥을 먹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눈다. ‘꼬르륵! 꼬르륵!’, ‘쫄록쫄록! 쫄로록!’, ‘벌떡’, ‘사뿐’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에 재미와 실감을 더한다. 또한 폭의 회화 작품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그림은 실제로 호숫가에서 돌을 던지고, 꽃 속에 숨어드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토라졌던 가족이 화해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 사이에서도 잠시 거리를 두고 돌아볼 마음의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표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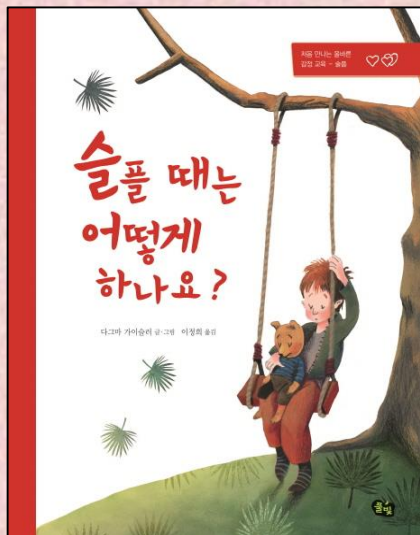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이현민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했으며, 2019 광주화루와 2007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이다. 《세한도(歲寒圖)》, 《안개 작은 지역》, 《비라! 빠라! 빠라 : 나부끼는 욕망에 관한 서사》 등 개인전을 가졌으며, 《인터미션 INTERMISSION》 등 단체전 전시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토라지는 가족』은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책의 형태로 풀어낸 첫 번째 그림책이다.

### 책 속 한 문장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것처럼요. (37쪽)



다그마 가이슬러 글 그림 ;  
이정희 옮김  
풀빛  
2019

## 슬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사서의 추천 글

“마음이 슬펐던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주인공 마리가 슬픔을 겪고 이겨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슬프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모습이 나온다. 사람마다 슬픔을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며, 슬픔을 이겨내는 어떤 방법도 모두 괜찮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점점 사라지고, 이겨 낼 수 없을 것 같은 슬픔도 언젠가는 아문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어린이에게 “힘을 내.”라는 말 대신 이 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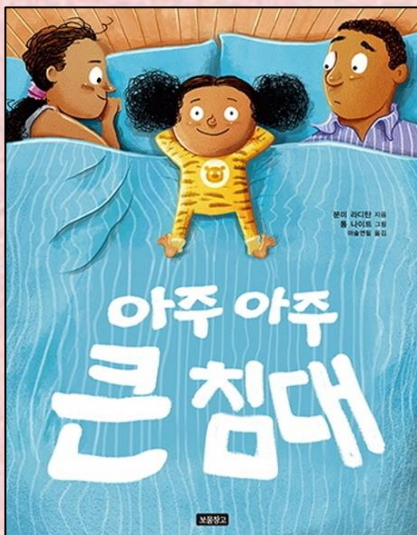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그때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중요해요” (24쪽)

### 저자 소개

#### 다그마 가이슬러

독일에서 태어나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많은 그림책과 어린이책의 삽화를 그렸으며, 최근에는 그림과 함께 글도 쓰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야』, 『나도 엄마 배 속에 있었어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길을 잃어도 문제없어!』, 『욕심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끔은 싸우기도 하는 거야』 등의 작품이 있다.



글: 분미 라디탄,  
 옮김: 마술연필  
 보물창고  
 2019

## 아주아주 큰 침대

### 사서의 추천 글

부모의 침대에서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아이. 침대에서 물러나기 싫어하는 아빠를 깜직한 아이디어로 설득한다. 아이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아빠를 위한 간이침대를 마련하는 것. 셋이 함께 자다, 아빠가 잠들고 나면 간이침대로 옮겨 주겠다고 제안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면서도 아빠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아이의 생각이 참신하고 순수해서 책을 읽는 내내 미소 짓게 된다. 혼자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과정은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다. 잠자리 독립을 거부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편 아이를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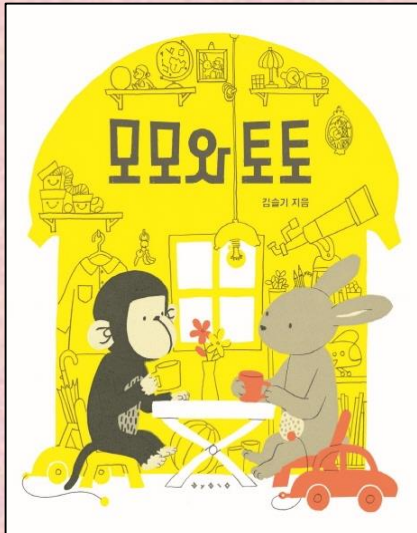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분미 라디탄

캐나다 몬트리올 교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으며, 블로그 <The Honest Toddler>의 크리에이터로 블로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육아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허핑턴 포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TV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CBS 선데이 모닝> 등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 자녀교육서 『걸음마 육아』, 그림책 『아주아주 큰 침대』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엄마는 정말 아늑하고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순 없을 거예요. (11쪽)



김슬기 지음  
보림  
2019

## 모모와 토토

### 사서의 추천 글

모모와 토토는 단짝 친구이지만 좋아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모모는 바나나 우유와 야구를 좋아하고, 토토는 당근 수프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모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나나의 색과 똑같은 노란색 선물들을 토토에게 건네지만, 토토는 모모와 놀지 않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나버린다. 당황한 모모는 친구들에게 토토의 행방을 묻다가 보라색 옷을 입은 코끼리, 초록색 모자를 쓴 판다, 파란색 앞치마를 입은 거북이 등 각자 다른 취향의 친구들을 보고 토토가 토라진 이유를 깨닫게 된다. 모모는 토토가 좋아하는 당근의 색깔인 주황색 꽃을 토토에게 선물하고, 둘은 다시 친구가 된다. 각자의 취향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내용을 다양한 색깔에 비유한 책이다. 리놀륨 판화 기법으로 제작된 그림이 산뜻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한다. 작가는 이 책으로 2019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 저자 소개

#### 김슬기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일본 DIC COLOR 디자인 스쿨에서 컬러디자인을 공부했다. 첫 그림책 『딸기 한 알』로 제1회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신인 작가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2013년 나미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쓰고 그린 책으로 『줄 하나』, 『촉촉한 여름 숲길을 걸어요』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토토가 왜 화가 났을까.....” (28쪽)

# 초등저

책제목	주제구분	지은이	발행사	발행년도
강아지 시험	문학	이묘신 글 ; 강은옥 그림	해와나무	2019
버섯 팬클럽	순수과학	엘리즈 그라벨 지음 ; 권지현 옮김	씨드북	2019
엄마의 희망고문	문학	글: 최형미 ; 그림: 이영림	잇츠북어린이	2019
오스발도의 행복 여행	철학	글·그림: 토마 바스 ; 옮김: 이정주	이마주	2019
욕 좀 하는 이유나	문학	류재향 글 ; 이덕화 그림	스콜라 :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2019
우리 가족의 특별한 직업	사회과학	알라 구트니첸코 글 ; 줄리아 콜로 모에츠 그림	스폰북	2019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신기한 일	순수과학	글: 이성실 ; 그림: 오정림	밝은미래	2019
우리는 반대 합니다! :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과학	클라우디오 푸엔테스 글 ; 가브리엘라 리온 그림 ; 배상희 옮김	초록개구리	2019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기술과학	김은의 글 ; 끌레몽 그림	풀과바람	2019
할머니랑 나랑은	문학	정수정 글 ; 신현정 그림	큰북작은북	2019



이묘신 글 ;  
강은옥 그림 ;  
한겨레아이들 :  
한겨레출판  
2019

## 강아지 시험

### 사서의 추천 글

강아지를 키우려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친구 미나는 가족의 동의뿐만 아니라 시험과 실습까지 통과해야 강아지를 주겠다고 한다. 선후는 '강아지 시험'이라는 생소하고 짜증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 선후는 단계별 시험을 통해 강아지 키우기에 대해 차츰차츰 알아간다. 과연 선후는 무사히 강아지 키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갖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주인공이 강아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선후는 강아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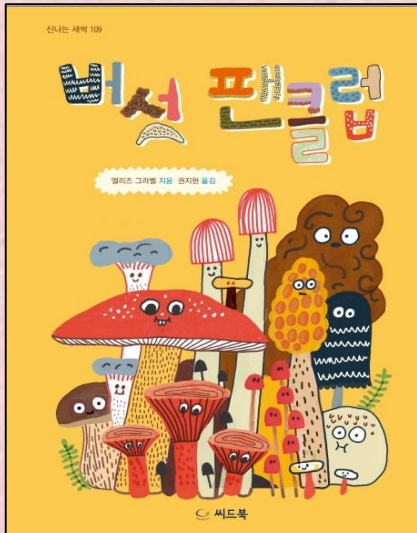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잠깐! 네 맘대로 강아지를 고를 수 없어!"  
이건 또 무슨 소리지요?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헷갈려요. "강아지더러 선택하라고 할거야" (76쪽)

### 저자 소개

#### 이묘신

2002년 MBC 창작동화대상에서 단편 동화 『꽃배』로 수상하였고, 2005년 동시 『애벌레 흥터』 외 다섯 편으로 제3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그림 동화책 『후루룩후루룩 콩나물죽으로 십 년 버티기』, 동시집 『책벌레 공부벌레 일벌레』 『너는 1등 하지 마』 『안이 궁금했을까 밖이 궁금했을까』 등이 있고, 청소년 시집 『내 짧은 연애 이야기』가 있다.



엘리즈 그라벨 지음 ;  
권지현 옮김  
씨드북  
2019

## 버섯 팬클럽

### 사서의 추천 글

외계에서 온 생물체 같이 생긴 책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곰팡이와 같은 균류이다. 버섯 중 몇몇은 우산을 닮기도 했지만,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제 각각이다. 냄새도 다 다르다. 책에서는 그물버섯, 곰보버섯, 땡구알 버섯, 쪽빛 젓버섯, 광대버섯 등 이름도 독특하고 재미있는 버섯 11종을 소개한다. 버섯을 외계에서 온 귀여운 생물체 같이 묘사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버섯의 특성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버섯에 관한 정보를 쉽고 친근감 있게 소개한 버섯 입문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물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 책 속 한 문장

“버섯 찾기는 자연이 숨겨 놓은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3쪽]

### 저자 소개

#### 엘리즈 그라벨(Elise Gravel)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고 징그러운 생물에 흥미를 가졌다. 네 살 때 '작고 징그러운 동물 보호 협회'를 세워서 회장을 맡고, 하나뿐인 회원이 되었다. 지은 책 『괴물을 갖고 싶어』, 『제시 엘리엇』, 『거인 안토니오』 등이 있다.





글: 최형미 ;  
그림: 이영림  
잇츠북어린이  
2019

## 엄마의 희망고문

### 사서의 추천 글

엄마가 아이에게 제안하는 약속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하면 ~해줄게.” 약속이라기보단 협상이라고나 할까. 나래 엄마 역시 나래에게 원하는 행동을 제시하고 물질적 보상을 약속한다. 독서 활동지 열 개를 쓰면 클레이 세트를 사준다는가..... 하지만 나래는 자기가 하는 일의 과정이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와 보상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엄마는 매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래를 나무랄 뿐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나래는 엄마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가 늘 억울하다. 약속은 어찌되었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걸까? 나래와 엄마는 서로 지키지 않은 약속을 통해 약속의 의미와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이와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하는 약속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다.

### 저자 소개

#### 글 최형미

2004년 어린이 동산 중편 동화 공모에서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스티커 전쟁』, 『이런아빠 저런아빠 우리아빠』, 『소문 바이러스』,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등이 있다.

#### 그림 이영림

국민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킹스턴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린 책으로는 『박씨 성을 가진 노비』, 『나비가 된 소녀들』, 『샷별 가디언즈』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엄마는 왜 자꾸 사준다고 약속만 하고 안 지켜?” (51쪽)

## 오스발도의 행복여행

### 사서의 추천 글

모험, 여행, 사랑의 경험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오스발도는 작은 방에서 짹짹의 노랫소리를 듣는 게 유일한 행복이다. 그런 오스발도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짹짹과 함께 모험을 떠난다. 갇혀 있는 생활만 하던 오스발도는 드넓은 곳으로 가게 되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친구도 만난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오스발도와 함께 세상과 소통하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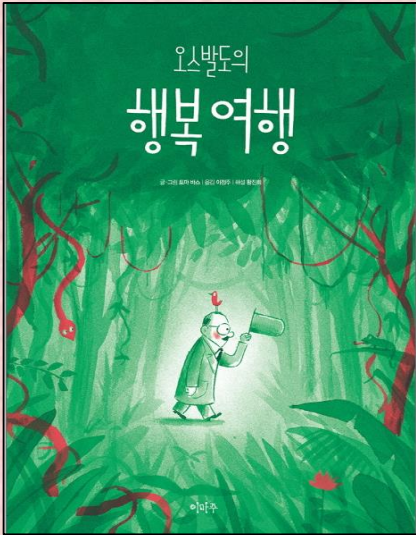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토마 바스(Thomas Baas)

1975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생, 스트라스부르국립 장식학교 졸업 후 어린이 책과 잡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린 책으로는 『특별한 곰 인형 케이프 혼』, 『철학하는 피콜로 시리즈』, 『나의 거울 책』, 『나쁜 꿈을 잡아먹는 괴물』 등이 있다

#### 이정주

서울여대 및 동대학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랑스 책들을 직접 찾고 소개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마티유의 까만색 세상』,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쌈짱과 얌전이의 결투』 등이 있다.



글·그림 토마 바스  
옮김 이정주  
이마주  
2019

### 책 속 한 문장

“너는 영원히 나의 좋은 친구야. 하지만 내가 행복한 곳은.....바로 이곳이야” (31쪽)



류재향 글 ;  
이덕화 그림  
스콜라  
2019

### 책 속 한 문장

“소미야, 너를 함부로 대하고 네 기분을 상하게 한 애의 사정을 네가 다 헤아릴 필요는 없어. 그 애가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야. 왜 네가 화풀이 대상이 되고 욕을 먹어야 해? 그건 개가 잘 못한 거야.” (70쪽)

## 욕 좀 하는 이유나

### 사서의 추천 글

유나는 욕 좀 하는 아이다. 이런 유나에게 친구 소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것도 하찮은 욕이 아닌 창의적인 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 마침내 유나는 국어사전까지 뒤져가며 만든 독창적인 욕으로 친구의 복수에 성공한다. 과연 유나의 기분은 통쾌하고 후련하기만 했을까? 어린이들은 종종 친구들과 사이에서 세 보이고 싶거나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욕을 사용한다. 아마도 유나와 친구들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욕을 사용하는 것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일까? 이 책은 가볍고 재미있는 문장과 이야기로 친구 관계와 관련한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 저자 소개

#### 글 류재향

국문학과 스토리텔링,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어린이 논픽션과 동화,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재난에서 살아남는 10가지 방법』, 『비밀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 등이 있다.

#### 그림 이덕화

2010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뽀루뚜아』 그림으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100개의 달과 아기 공룡』, 『궁디팡팡』이 있다.



알라 구트니첸코 글 ;  
줄리아 콜로모에츠 그림 ;  
김선희 옮김  
스폰북  
2019

## 우리 가족의 특별한 직업

### 사서의 추천 글

직업의 개수는 만개가 넘는다. 하지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다. 직업의 이름만 알 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주인공은 자기 가족의 특별한 직업을 소개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직업을 알려준다. 직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직업과 생소한 직업이 있다. 모두가 우리 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직업이다. 직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림으로 보여 주어 시각적으로 이해도를 높여 준다.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하는 상상을 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 책 속 한 문장

"너희는 어떤 직업이 마음에 드니? 미래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77쪽)

### 저자 소개

#### 알라 구트니첸코(Alla Gutnichenko)

키예프 보구슬라프 출생으로 빌라 체르크바 국립 아그라리안 대학에서 생태학을 전공했다.

#### 줄리아 콜로모에츠(Julia Kolomoets)

우크라이나 국립미술건축대학교 졸업했다. 그래픽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한 작품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신기한 일

### 사서의 추천 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신기한 일이라고? 제목만 봐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동물들의 탄생과 성장은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두 번째로 신기한 일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신기한 일은 뭘까? 아이의 탄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든 생명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자연현상이나 동물 이야기에 관심 많은 시기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생일날에 읽으면 더욱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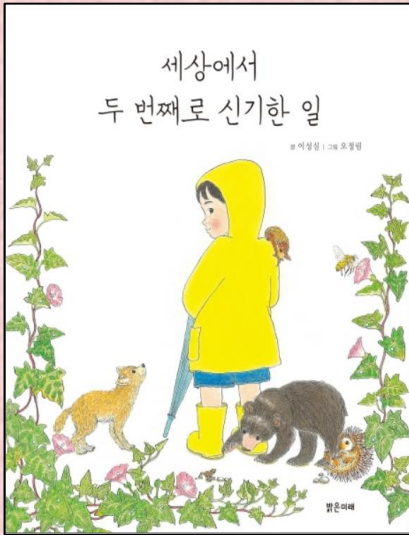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이성실

생명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흥미로운 자연을 통해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한 책을 만든다. 작품으로 『거미가 줄을 타고』, 『참나무는 참 좋다!』, 『내가 좋아하는 곡식』, 『내가 좋아하는 식물원』, 『지렁이가 흙 똥을 누었어』 등이 있다.

#### 오정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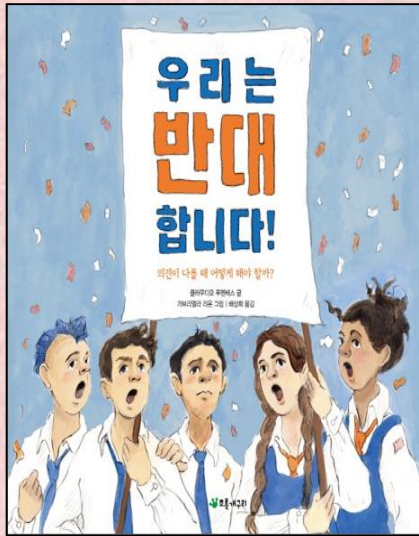
섬세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색을 좋아한다. 작품으로 『금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불이 번쩍! 전깃불 들어오던 날』, 『우산 도서관』, 『나리야, 미안해』, 『숲속의 비밀』, 『몰래 버린 실내화 한 짝』이 있다.



글 이성실 ;  
그림 오정림  
밝은 미래  
2019

### 책 속 한 문장

“세상에서 첫 번째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소중하고 고마운 일, 그건 네가 태어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야!” (27쪽)



클라우디오 푸엔테스 글 ;  
가브리엘라 리온 그림 ;  
배상희 옮김  
초록개구리  
2019

## 우리는 반대 합니다!

### 사서의 추천 글

개학 후 아이들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칠레소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300살 된 나무를 보호하자는 장수 나무 팀과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학교 발전 팀으로 의견이 나뉜다. 양 팀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토론을 하고, 마침내 찬반투표를 치르게 된다. 과연 누가 이길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다. 자기 생각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공동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건강한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저자 소개

#### 클라우디오 푸엔테스(Claudio Fuentes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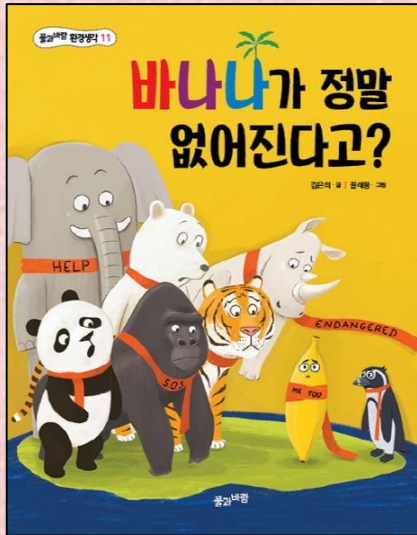
칠레 가톨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교 교수이자 같은 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

#### 가브리엘라 리온(Gabriela Lyon)

칠레 피니스테라에대학교에서 시각 예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같은 대학에서 드로잉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 새의 모험』에 그림을 그렸다.

### 책 속 한 문장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못할 것도 없지.” [42쪽]



김은의 글 ;  
플레몽 그림  
풀과바람  
2019

##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 사서의 추천 글

바나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과일이다. 이런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니..... 왜일까? 오래전 귀하고 비싸서 쉽게 맛볼 수 없었던 바나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기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바나나 농장을 만드느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 우림이 사라졌고, 파나마병이 농장을 휩쓸었다. 이로 인해 바나나는 멸종 위기에 놓인다. 맛있어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 바나나. 과연 우리는 앞으로 바나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바나나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류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지구 환경의 위기와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 책 속 한 문장

바나나를 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곧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인 거지요.

(72쪽)

### 저자 소개

#### 김은의

『상상력 천재 기찬이』로 푸른문학상, 『놀이와 영웅』으로 송순문학상을 받았고, 동화작가가 모여 만든 '날개달린연필'에서 기획한 『명탐정, 세계 기록 유산을 구하라』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이리 보고 저리 재는 단위 이야기』, 『콩만이는 못말려』 등이 있다.



정수정 글 ;  
신현정 그림  
큰북작은북  
2019

## 할머니랑 나랑은

### 사서의 추천 글

할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오신다고 하자 아이는 좋아 폴짝 폴짝 뛸 정도다. 할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얌전하게 굴라는 엄마 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이와 할머니는 비슷한 게 많다. 아이는 자전거, 할머니는 실버카로 각각 전용차가 있다. 둘 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 전용차를 나란히 밀고 나가 마트에서 사탕과 초콜릿도 사 온다. 매사에 궁금한 것도 많고 좌충우돌 실수가 많다는 것도 똑같다.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다는 아이의 천진함,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사진첩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가족의 따뜻함이 정겹게 묻어나는 그림책이다.

### 저자 소개

#### 글 정수정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하였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만들다가 지금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가 하면 우리가 변해요』, 『테테 불켜라 반디야, 노래해』, 『할머니의 노래』가 있다.

#### 그림 신현정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따뜻하고 밝은 파스텔 색조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그린 작품으로는 『내가 하면 우리가 변해요』, 『내 몸이 말했어』, 『무지개 방귀 뽕!』, 『엄마랑 뽀뽀 쪽!』, 『자꾸자꾸 화가 나』, 『자꾸자꾸 겁이 나』, 『까꿍! 나야, 나』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할머니랑 나랑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3쪽)



# 초등고

책제목	주제구분	지은이	발행사	발행년도
묘한 밤하늘에 별자리가 낭랑 : 별난 고양이와 떠나는 천문학 여행	순수과학	스튜어트 앳킨슨 지음 ; 브렌던 키어니 그림 ; 김아림 옮김	청어람아이 : 청어람미디어	2019
소녀와 소년 :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사회과학	윤은주 글 ; 이해정 그림	사계절	2019
돈이 자라는 나무 : 학교에서 돈을 배우자!	사회과학	박정현 글 ; 이현지 그림	한겨레아이들 : 한겨레출판	2019
나의 탄생	문학	안네테 헤어초크 글 ; 카트린 클란테 그림 ; 김영진 옮김	비룡소	2019
(십 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	사회과학	정수임 지음	팜파스	2019
로봇 형 로봇 동생 : 김리라 장편동화	문학	글쓴이: 김리라 ; 그린이: 주성희	책읽는곰	2019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사회과학	글: 유혜진 ; 그림: 이유나	책읽는달	2019
(어린이가 알아야 할)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총류	채화영 글 ; 박선하 그림	팜파스	2020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고?	순수과학	지은이: 좌용주 ; 그린이: 김소희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9
유전자 조작 반려동물 뭉치	문학	김해우 글 ; 김현진 그림	책과콩나무	2019



수튜어트 앳킨슨 지음 ;  
브렌던 키어니 그림  
김아림 옮김  
청어랑아이  
2019

## 묘한 밤하늘에 별자리가 땡땡

### 사서의 추천 글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북두칠성 같은 특정한 무늬와 모양의 별을 볼 수 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별과 달의 위치, 별뿔별 등 밤하늘의 모습을 관찰해 왔고, 지금은 놀라운 발전으로 새로운 천문학의 현상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 책은 초보관찰자들을 위해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원리와 각 별자리의 특징을 알려준다. 또한 별자리 이름과 모양에 얽힌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달, 행성, 별, 은하수, 오로라 등에 얽힌 그리스 신화와 함께 재미난 천문학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과학책이다.

### 저자 소개

#### 스튜어트 앳킨슨 (Stuart Atkinson)

어린 시절 달 착륙을 지켜 본 이후로 우주와 천문학에 매혹, 거의 30년에 걸쳐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책을 쓰고 편집했다.

### 책 속 한 문장

지구는 일 년에 걸쳐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우주의 각기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답니다. (13쪽)



윤은주 글 ;  
이해정 그림  
사계절  
2019

## 소녀와 소년 : 멋진 사람이 되는 법

### 사서의 추천 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 어른들은 “여자다워야 해”, “남자다워야 해”라며,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여자, 남자들이 해야 할 행동을 정해놓고 이야기한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일까? 이 책에서는 남자는 근육이 울퉁불퉁, 큰 꿈을 꾸기만 해야 하고, 눈물도 흘리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여자는 예뻐야 하고, 청소도 잘 해야 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 대신, 어린이가 ‘멋진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 자, 다 같이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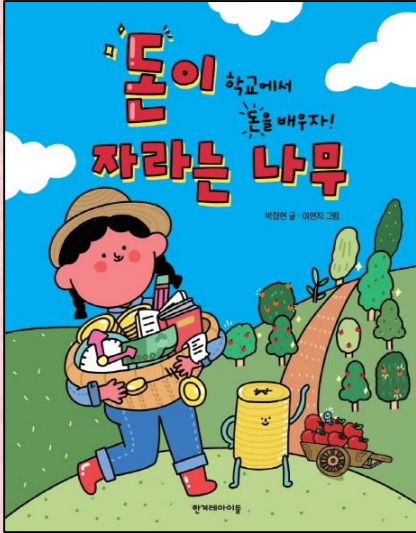
#### 윤은주

어릴 때 차별이나 불평등한 규칙에 몹시 불만이 많은 여자아이였다. 차별에 맞서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 그다지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린 시절의 나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다. 쓴 책으로는 『음식, 잘 먹는 법』, 『입맛 당기는 별별 세계 음식』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여자든 남자든 괜찮은 사람, 쓸 만한 어린이 되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성별을 나누어 할 필요 없잖아.”

(32쪽)



## 돈이 자라는 나무 : 학교에서 돈을 배우자!

### 사서의 추천 글

돈은 왜 필요할까?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할까? 무조건 많으면 좋을까? 이 책은 돈과 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론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 준다. 잘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내 편으로 만들어 잘 사는 방법도 있다. 돈은 인생을 사는 데 든든한 버팀목과 자산으로 도움이 된다. 나를 알고 돈을 알면 언제 어디에서든 멋지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돈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잘 살아갈 수도 있다. 돈에 관심이 생긴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박정현 글 ;  
이현지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9

###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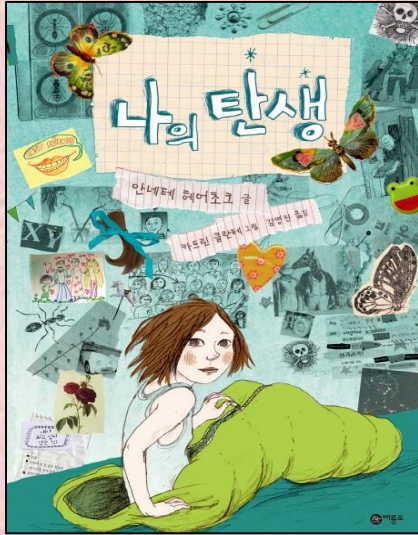
'시간은 돈'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시간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어른들은 "돈 아껴 써!"라고는 하지만 "시간 아껴 써!"라는 말은 좀처럼 하지 않아요. 시간은 돈이라면서 왜 그러는 걸까요?

(12쪽)

### 저자 소개

#### 박정현

서울교육대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친구들과 지내고 있다. 교실 바깥에서 펼쳐지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돈과 경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반 친구들과 나눴던 돈과 경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책을 썼다.



안네테 헤어초크 글 ;  
카트린 클란테 그림 ;  
김영진 옮김  
비룡소  
2019

## 나의 탄생

### 사서의 추천 글

“죽는 거랑 ‘태어나지 않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비올라가 묻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필요 없는 나무탁자만 만들고 계신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5학년이 되면 다 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12살이 되니 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만 더 늘었다.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것,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등에 대해 적어가고 표현하며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나의 모든 것이 의문인 10대의 시기, ‘나’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일기를 통해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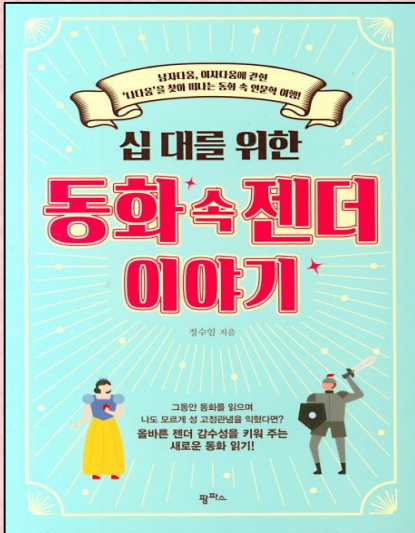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 아, 삶의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난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산다는 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  
(82쪽)

### 저자 소개

#### 안네테 헤어초크(Annette Herzog)

1960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북독일에 위치한 그라이프스발더 대학에서 덴마크어와 영어를 전공했다. 1991년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다. 슬하에 성인 자녀 넷을 두고 있으며 2000년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과 라디오 극을 독일어와 덴마크어로 쓰고 있다.



정수임 지음  
팜파스  
2019

## (십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

### 사서의 추천 글

‘공주’ 말고 ‘나답게’, ‘왕자’ 말고 ‘나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찾아 학교 선생님인 저자와 10대들이 편지를 주고 받는다. 『백설공주』, 『라푼젤』, 『빨간모자』는 여성으로서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과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외모지상주의가 나오지 않나? 『피노키오』, 『미녀와 야수』, 『행복한 왕자』에는 남자는 무엇이든 무찌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아이들은 이야기 속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는다. 동화 속에 숨겨진 가부장제, 핑크텍스, 페미사이드 등의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한쪽 편이 아닌 경계에 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필요성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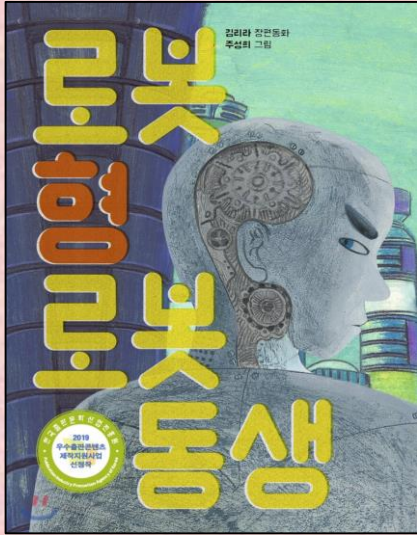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다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는 말을 들을 본 적 있니? 이 말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문구야 ” (131쪽)

### 저자 소개

#### 정수임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고등국어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했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내 말 좀 들어 줄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위험하고 위대한 여자들』, 『열일곱의 맛 철학』,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등을 썼다.



## 로봇 형 로봇 동생 : 김리라 장편동화

### 사서의 추천 글

아버지가 없는 레온이 가족에게 영웅이 형은 든든한 존재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이 있으니 바로 영웅이가 로봇이라는 사실. 게다가 영웅이는 로봇 3원칙을 어기는 바람에 전량 회수되고 판매 금지된 로봇인 '필봇'이다. 미래 사회의 엄청난 빈부 격차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가족은 엄마의 실직으로 더욱 곤궁해진다. 영웅이 형은 로봇이란 정체성을 숨기고 일을 시작하지만,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충전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쓰러지고 만다. 과연 레온이는 영웅이 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까? 이 책은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미래가 두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이다.

### 저자 소개

#### 글 김리라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했으며,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로 제4회 웅진주니어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우리는 걱정 친구야!』, 『너랑 절대로 친구 안 해!』, 『안 돼, 낯선 사람이야!』 등이 있다.

글쓴이: 김리라 ;  
그린이: 주성희  
책읽는곰  
2019

### 책 속 한 문장

“그럼, 가족이지. 우리 엄마한테 큰 아들이고 나한테 형이고. 영웅이 형이랑 난 딱 붙어서 지내. 잠도 거실에서 같이 자. 내가 비실댄다고 날마다 운동도 시켜 줘. 가끔 다들 때도 있지만, 금방 화해해.” 내 말이 끝나자 찰스는 제우스를 힐끔 쳐다보았다. “신기하다. 로봇이랑 가족처럼 지낸다니.....”

(98쪽)

##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 사서의 추천 글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노동자 하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대통령도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기자단 기자인 주인공 하준은 친구 윤이와 동네 노동자들을 찾아서 취재하기로 했어요. 여행사에 다니는 윤이 아빠도 만나고, 미용실 미용사도 찾아가고, 재봉틀 디자이너 할머니도 취재했어요. 또한 집안일을 하는 엄마의 가사 노동 가치도 알게 되었답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취재한 하준과 윤이는 어떤 노동자들을 신문에 넣을까요? 또 신문에 어떻게 소개할까요? 노동, 노동자, 노동자가 필요한 것, 행복해지는 방법까지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책입니다.

글: 유혜진 ;  
그림: 이유나  
책읽는달  
2019

### 책 속 한 문장

“노동은 멋지고 소중한 단 걸 깨달았어요.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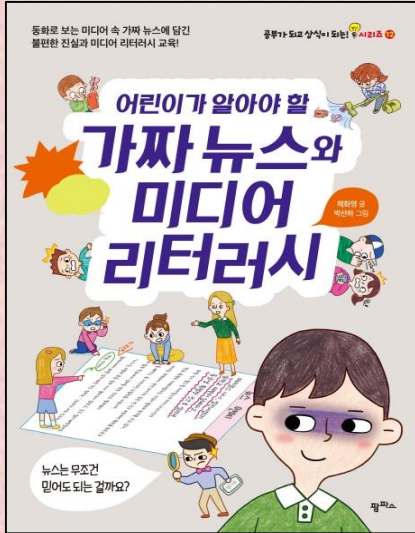
(63쪽)

### 저자 소개

#### 유혜진

『안녕, 토끼나무』로 제9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단편 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광남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에 당선되었다. 상상한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걸 좋아하며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 지은 책으로는 『나와 제이』, 다문화 동화인 『돈가스 안 먹는 아이』 등이 있다.





채화영 글 ;  
박선하 그림  
팜파스  
2020

## 책 속 한 문장

“뉴스 보도 기사를 쓸 때는 언제(when), 어디서(when), 누가(who), 왜(why), 무엇을(what), 어떻게(how) 라는 여섯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갖추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해요.” (27쪽)

# (어린이가 알아야 할)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 사서의 추천 글

지효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의 링크를 확인하고 유명 톱스타 J양의 사망 소식이 실린 기사를 보고 놀란다. 그 소식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았지만 J양의 사망 관련 기사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기사 내용도 뭔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던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미디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사용한다. 어떤 정보가 올바르고 유용한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고, 가짜 뉴스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다. 이 책은 미디어 속 5가지 가짜 뉴스를 이야기 형식을 빌려 소개하면서 뉴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중요성,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준다. 더불어 조선시대 주초위왕 사건, 영국 브렉시트 가짜 뉴스 사건 등 가짜 뉴스로 인해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대한 상식을 제공해주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 저자 소개

### 채화영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 『존댓말 사용 설명서』, 『존댓말을 잡아라』, 『왜 왕따 시키면 안 되나요?』, 『왜 성을 함부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나요?』, 『왜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나요?』 등이 있다.



지은이 좌용주 ;  
그린이 김소희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9

##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고?

### 사서의 추천 글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화산은 왜 폭발할까?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할까? 등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과학질문으로 가득하다. 이 책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암석, 지진, 마그마의 대폭발 슈퍼화산에 이르기까지 신비한 지구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풀어준다. 40개 질문을 통해 46억 살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지구의 비밀을 알려준다. 지금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래의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그럼 당장 이 책을 펼쳐라!

###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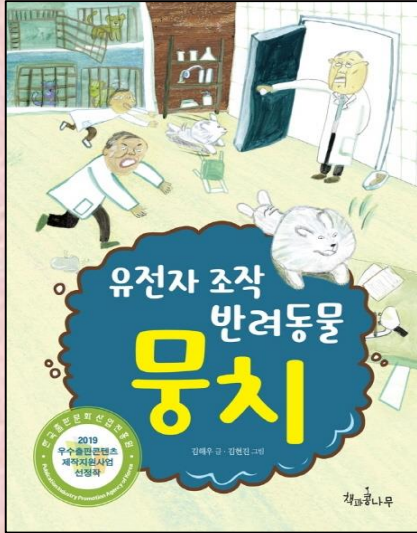
“판 구조론의 연구로 지구의 땅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땅들이 움직이니까 세계 지도는 시시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97쪽)

### 저자 소개

#### 좌용주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1992년부터 경상대학교 지질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고고학과 관련된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수과학도서 저자상 수상 『가이아의 향기』, 『베게너가 들려주는 대륙 이동이야기』, 『월슨이 들려주는 판 구조론 이야기』 등이 있다.



## 유전자 조작 반려동물 뭉치

### 사서의 추천 글

“입맛대로 취향대로, 네오펫” 네오펫은 유전자 조작 반려동물이다. 네오펫 연구소는 유전자 조작으로 강아지 털색 등 동물의 외모를 바꾸는 건 물론 사자의 성격까지 순하게 바꾸어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주인공 견이도 친구 범수가 키우는 사자 네오펫을 보고 네오펫을 키우고 싶었다. 어느 날 견이는 떠돌던 개를 만나고 집에 데려와 뭉치라고 이름붙이며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뭉치의 주인이 경찰과 함께 나타나 뭉치를 어디론가 끌고 갔다. 견이는 범수의 네오펫 사자 또한 아파서 네오펫 연구소에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자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견우와 범수는 네오펫 연구소에 몰래 찾아가고, 네오펫 연구소의 비밀을 알게 되어 연구소 직원에게 붙잡힌다. 견우와 범수는 무사히 연구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유전자 조작의 명암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과학 동화이다.

김해우 글 ;  
김현진 그림  
책과콩나무  
2019

### 저자 소개

#### 김해우

2009년 단편동화 『일곱 발, 열아홉 발』로 제8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받았으며, 2013년 장편동화 『뒷간 지키는 아이』로 제8회 소천아동문학상 신인상을 받았다. 그 밖의 저서로는 『아빠는 내가 고를 거야』, 『정직맨과 고자질맨』, 『내가 진짜 기자야』, 『77번지 쓰레기 집의 비밀』, 『우리 가족이 수상해』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20쪽)

# 청소년

책제목	주제구분	지은이	발행사	발행년도
슬픈 노벨상	사회과학	정화진 글 ; 박지윤 그림	파란자전거	2019
맨발의 소녀	문학	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 지음 ; 이계순 옮김	라임	2019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순수과학	최원형 글 ; 방상호 그림	플빛	2019
나는 나를 돌봅니다 : 십 대를 위한 자기 자비 연습	철학	박진영 지음	우리학교	2019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예술	태지원 지음	자음과모음	2019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	어학	김청연 지음 ; 김예지 일러스트	동녘	2019
십대들을 위한 맛있는 인문학	기술과학	지은이: 정정희 ; 일러스트: 박상규	맘에드림	2019
학교 가기 싫은 날	총류	권희린 지음	생각학교 : 생각정원	2019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사회과학	복대원, 선보라 지음	바다출판사	2019
먹고 마시고 요리하라 : 음식 으로 배우는 통합 사회	기술과학	강재호 글 ; 이해원 그림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9



정화진 글 ;  
박지윤 그림  
파란자전거  
2019

## 슬픈 노벨상 : 인류를 구했던 영광의 노벨상, 왜 세계의 재앙이 되었을까?

### 사서의 추천 글

매년 노벨상 발표 시기에 전 세계의 눈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은 인류 삶과 복지에 헌신한 공로에 수여되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던 그 결과물이 시간이 흐르면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기도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살충제 DDT, 날개 없는 천사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항생제, 청정에너지로 여겨졌던 원자력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노벨상 제정 과정부터 시작해, 수상 당시 인류에게 커다란 축복이자 희망이던 노벨상 결과물이 잘못된 방법이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재앙이 된 사례를 다양한 삽화를 곁들여 소개한다. 저자는 슬픔의 노벨상이 기쁨의 노벨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 물으며 인류가 함께 만들어 갈 희망을 이야기한다. 노벨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특별히 권한다.

### 책 속 한 문장

"핵 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 보이는 겁니다." (146쪽)

### 저자 소개

#### 정화진(지은이)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전환기의 민족문학》에 단편소설 『씻물처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며 글쓰기와 번역을 하고 있다.



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 지음 ;  
이계순 옮김  
라임  
2019

## 책 속 한 문장

“나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건 바다와 햇살과 말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사랑과 비슷했다. 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그 이름을 찾았다. 그건 기쁨이었다.”

(287쪽)

## 맨발의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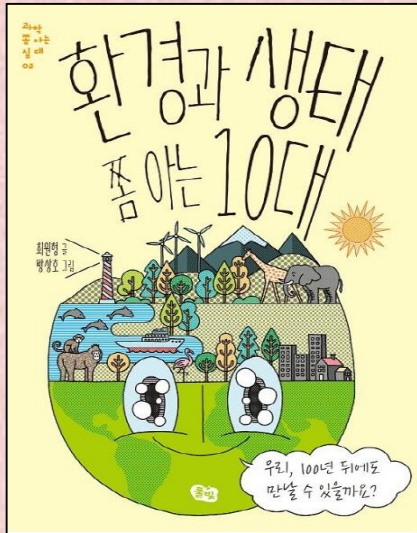
###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의 원제는 '내 삶을 구한 전쟁(The War That Saved My Life)'으로, 열세 살 소녀 에이다는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다. 에이다는 오른쪽 발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족을 앓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만 타인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치유 받는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서적,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성숙한 어른의 자격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미국에서 출간된 후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5 최고의 책', 2016년 '뉴베리 아너상'을 받았다.

### 저자 소개

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  
(Kimberly Brubaker Bradley)

1967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다. 2016년에 『맨발의 소녀』로 뉴베리 아너 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쓰고 있다.



**최원형 글 ;  
방상호 그림  
풀빛  
2019**

## 환경과 생태 쫘 아는 10대

### 사서의 추천 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행하는 소비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컵라면, 바나나, 아보카도, 생수병, 휴대폰 등 여덟 가지 소비 행동을 살펴본다. 사소한 기쁨이나 필요에 의한 소비는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상 외로 거대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그렇다고 온전히 소비자의 잘못일까? 당장 소비를 멈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약한 노동자를 이용한 기업, 그 기업을 규제하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나'가 서로 책임을 다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즐거운 불편'을 고민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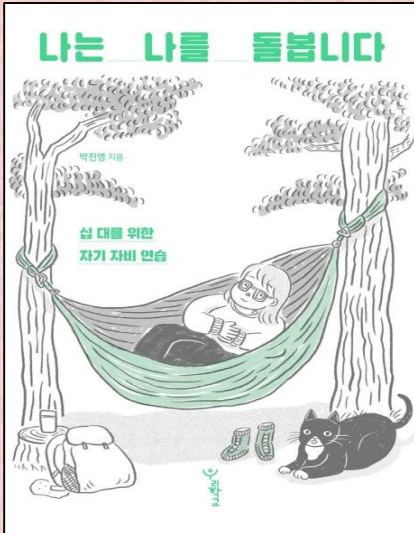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야.” (133쪽)

### 저자 소개

#### 최원형

잡지사 기자, 방송 작가로 일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태와 환경책을 눈여겨 읽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교육·시민소통분과 위원이다. 쓴 책으로는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 특강』, 『세상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에서 생태 감수성 키우기』가 있다.



**박진영 지음**  
**우리학교**  
**2019**

## 나는 나를 돌봅니다 : 침대를 위한 자기 자비 연습

### 사서의 추천 글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저자는 철학적인 개념을 말하기보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마음에 다가선다. 자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특이 바로 감정이며, 건강한 감정 해소법에 대해 알려 준다.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을 찾기 위해 누구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하는 비법을 알려준다.

###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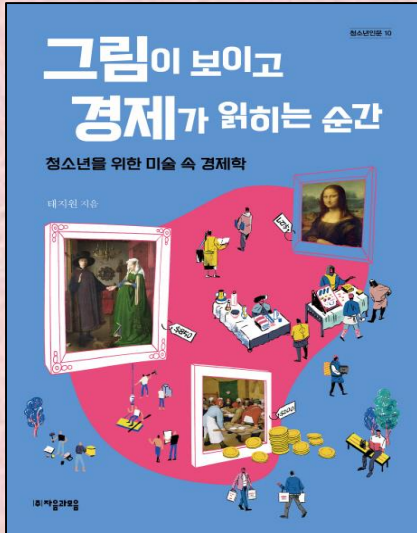
“많은 괴로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45쪽)

### 저자 소개

#### 박지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이러는 걸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커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의과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통합의학 프로그램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마음 챙김, 자기 자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등이 있다.





**태지원 지음**  
**자음과모음**  
**2019**

##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 사서의 추천 글

그림으로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림과 경제는 언뜻 잘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청소년들이 경제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과 얽힌 경제적 의미를 설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희소성을, 결혼식 장면이 담긴 그림으로 기회비용을, '독일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라는 그림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알려 준다.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 형식의 구성과 챕터마다 있는 정리하기는 실제로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있는 느낌을 준다. 다만 교과서 속 경제 개념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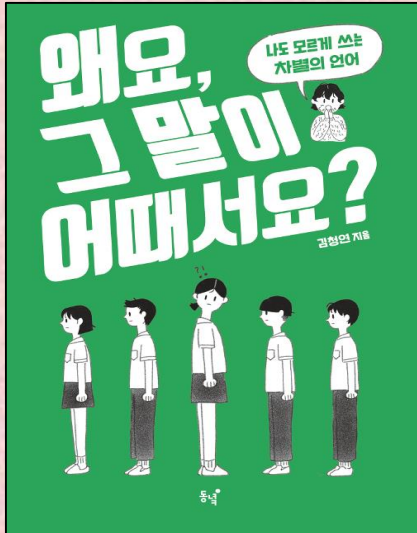
"모든 것이 극단화되고 있다. 약탈과 학살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 북부 독일은 아직 전쟁 중이다. 기아! 빵 한 조각에 1조 14억 원이라니! 조금 있다가 800억 원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194쪽)

### 저자 소개

#### 태지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사회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에서 경제, 사회문화, 역사, 지리 등의 다양한 사회 과목을 가르쳤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지은 책으로 『독도를 부탁해』, 『미술관 옆 사회교실』, 『경제 선생님 스크린에 풍덩』, 『독도 바로알기 대회 한권으로 끝내기』 등이 있다.



김청연 지음 ;  
김예지 일러스트  
동녘  
2019

##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

### 사서의 추천 글

요즘 언어 문화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마저 생긴다. 청소년의 언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차별, 혐오, 고정관념, 편견이 담긴 말이다. 일상에서 별 의식 없이 '그냥' '부르기 편해서' '재미있어서'라는 이유로 습관처럼 쓰이는 말들에 숨은 차별 표현을 하나씩 짚어본다. 단어 하나에 숨은 차별을 읽다 보면 나이, 장애, 인종, 경제력, 지역, 학력, 학벌, 직업, 성별 등으로 타인을 차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혹시라도 남에게 칼이 되는 차별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반성해 볼 일이다.

###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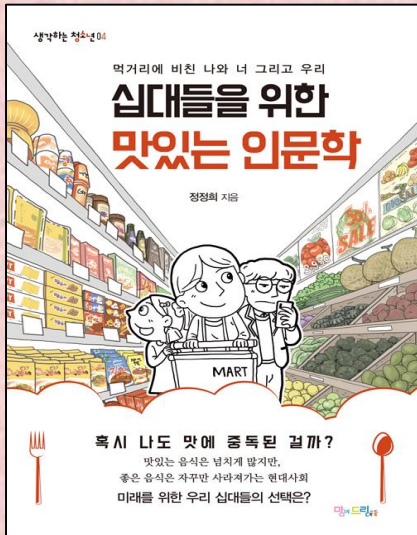
"뭐 그렇게 예민하냐고? 그 말과 행동이 한 사람 입장에서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결코 사소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되겠지."

(149쪽)

### 저자 소개

#### 김청연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한다. 말과 글에 대해 더욱 신경쓰고 예민해지고 싶은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 『책이 있는 마을』, 『책으로 노는 집』 등이 있다.



지은이: 정정희 ;  
일러스트: 박상규  
맘에드림  
2019

## 십대들을 위한 맛있는 인문학

### 사서의 추천 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십대! 그들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나를 살리는 음식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닌 '잘' 먹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흥준 작가의 말은 음식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 사회 그리고 지구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패스트푸드의 등장으로 인해 멀어진 밥과 국, 우리 음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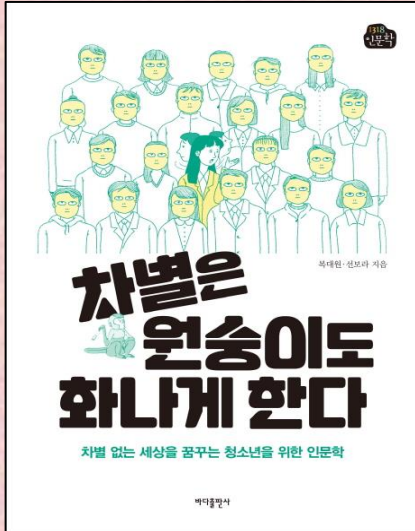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짐승은 먹이를 먹고  
인간은 음식을 먹는  
다”, 브리야 사바랭  
(76쪽)

### 저자 소개

#### 정정희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4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고기가 없으면 손가락을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먹거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복대원, 선보라 지음  
바다출판사  
2019

##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 사서의 추천 글

부끄러움, 절망,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차별받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다. 개인은 행복을 위해 다수를 구성하지만, 그 다수에 의해 어떤 개인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묵인 하에, 혹은 군중심리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이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 감수성이다. 이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무뎠지는 게 특징이다.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냈던 상황들을 이 책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 감수성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차별 감수성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책 속 한 문장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화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  
(1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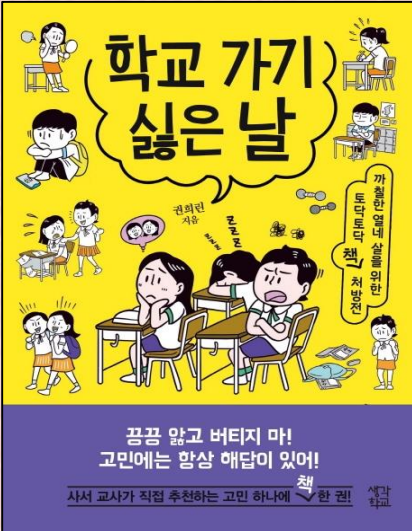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복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방황하는 10대를 위한 7 희망계단』 『쌤, 부자가 되고 싶어요』(공저) 등이 있다.

#### 선보라

장평중학교 사회과 교사이자 대안사회교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교과연구를 하고 있다. 공저로 『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공정무역 이야기』가 있다.



권희린 지음  
 생각학교 :  
 생각정원  
 2019

## 학교 가기 싫은 날 : 까칠한 열네 살을 위한 토닥토닥 책 처방전

### 사서의 추천 글

사서 교사인 저자가 책을 통해 청소년과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네주는 책 처방전이다. 저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뭘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질문하며 청소년이 스스로를 존중하게 하고 고민을 함께 토닥여준다. 저자는 친구나 가족 관계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제 상황별로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책을 권한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감정 장애를 지닌 청소년 주인공이 행복을 찾는 『아몬드』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진짜 자신을 숨기다 이를 드러내는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를 읽으라고 권하는 식이다. 두 권 모두 주변 사람에게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대화체의 문장이 마치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상담하는 듯한 따뜻함까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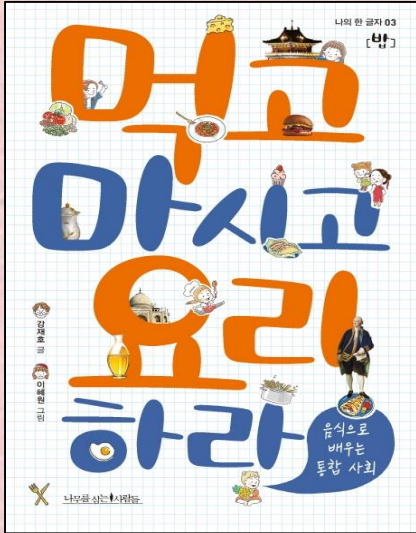
### 저자 소개

#### 권희린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했다. 국어교사이자 사서교사로서, 비를 맞아 구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주름을 팍팍 펴주는 다리미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저서로는 『B급 언어, 세상에 태클 걸다』, 『중학생할 대작전 D-1』, 『우물쭈물 서른, 대책 없이 어른』, 『인생독학』, 『도서관 여행』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남이 물 주고 억지로 키워 봤자, 그것은 내 열매도 아니고 그 맛도 달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라나야 해.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지.” (245쪽)



## 먹고 마시고 요리하라 : 음식으로 배우는 통합 사회

### 사서의 추천 글

지리 교사인 저자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이야기를 통해 지리,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인문학 레시피다. 옛 로마인들은 이탈리아에 포도와 올리브를 널리 심었고 이는 지중해성 기후와 로마 제국의 번성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나아가 인도의 커리, 미국의 햄버거, 멕시코의 살사, 일본의 스시와 라멘 등 11개국 나라의 음식 이야기로 지리와 문화를 배우다 보면, 마치 각 나라를 섭렵하는 세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세계에서 빵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과 같은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각 나라 대표 음식 요리법을 친근한 일러스트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다 보면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게 한다. 이처럼 소곤소곤 음식 기행담을 소개해주는 선생님의 수업이라면 학생뿐 아니라 어른도 듣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강재호 글 ;  
이혜원 그림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9

### 책 속 한 문장

"세계 여러 곳의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음식 이야기에 푹 빠져 보세요. 인생의 작은 행복이 펼쳐질 겁니다." (7쪽)

### 저자 소개

#### 강재호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서울 혜원여자고등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지은 책으로는 『지리 레시피』, 『장마야 잘 가』 등이 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고등학교 세계지리』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